

◆ 러시아 속 핀-위구르의 문
카렐리야 공화국
(Республика Карелия)



김재명

목 차

- I. 카렐리아 개관
 - 1.1.1 종합개관
 - 1.1.2 일반개관
 - 1.2 자연환경
 - 1.3. 국가 상징
 - 1.3.1 국기
 - 1.3.2 국장
 - 1.3.3 국가
- II. 역사
- III. 정치
- 3.1 대통령
- 3.2 행정부
- 3.3 입법부
- 3.4 사법부
- 3.5 공식대표부
- 3.6 주요 정치 동향
- IV. 경제통상
- 4.1 경제개관
- 4.2 주요 산업
- 4.2.1 임업
- 4.2.2 광업
- 4.2.3 기계제조업
- 4.2.4 농수산업
- 4.2.5 관광업
- V. 사회문화
- 5.1 인구 및 민족구성
- 5.2 행정구역
- 5.3 언어
- 5.4 문화
- VI. 주요인물
- VII. 대한관계
- VIII. 참고문헌

I. 카렐리아 개관

1.1.1 종합개관¹⁾

카렐리아 공화국의 위치²⁾



카렐리아 공화국은 자연, 문화, 역사 면에서 독특한, 러시아 연방 북서쪽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서쪽에서 핀란드와 접경하여 유럽연합과 가장 긴 국경을 보유하며, 북동쪽은 백해와 접한다. 영토 면적은 180,520km²로 그리스나 불가리아와 비슷하며, 이는 러시아 연방 전체 지역 중 18위, 연방 내 공화국 중 5위의 면적이다. 남북 길이는 660km, 동서 길이는 424km이다. 인구는, 2024년 1월 기준, 52만 3천 명이다.

카렐리아는 행정구역 분류상 18개 행정구, 2개 시, 16개 도시형마을, 70개 농촌마을 등으로 구성된다. 수도는 1703년 표트르 대제가 건립한 페트로자보츠크이다. 침역수림, 호수, 강으로 둘러싸인 청정지역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유명하다. 영토의 25% 이상이 수역으로, 약 2만 7천 개의 강과 약 6만 개의 호수가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큰 호수인 라도가호와 오네가호가 있다. 이러한 육지와 수역의 비율이 러시아에서 카렐리아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으로 구성된다. 수도는 1703년 표트르 대제가 건립한 페트로자보츠크이다. 침역수림, 호수, 강으로 둘러싸인 청정지역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유명하다. 영토의 25% 이상이 수역으로, 약 2만 7천 개의 강과 약 6만 개의 호수가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큰 호수인 라도가호와 오네가호가 있다. 이러한 육지와 수역의 비율이 러시아에서 카렐리아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1) <https://gov.karelia.ru/karelia/> (검색일: 2025.04.06.)

2) en.wikipedia.org/wiki/Republic_of_Karelia (검색일: 2019.6.24.)

1.1.2 일반개관³⁾

국명	카렐리야 공화국(Republic of Karelia)
수도	페트로자보츠크(Petrozavodsk, 23만명, 2024년 1월 1일 기준)
면적	180,520km ² (러시아의 1.0%)
인구	523,900명(2024년 1월 1일)
민족구성	러시아인(86.4%), 카렐리야인(5.5%), 벨로루시인(2.0%), 우크라이나인(1.2%), 핀족(0.7%), 벵스인(0.5%), 기타(3.7%)
종교	러시아정교
공용어	러시아어 (카렐리야어, 핀란드어, 베프스어)
정부형태	공화국
대통령	아르투르 파르펜치코프(Artur Parfenchikov)
의회	단원제
연방관구	북서연방관구
경제관구	북부경제관구
주요산업	광물자원 채굴, 목재가공업, 제지산업, 금속공업, 기계제조업
GRP (2023년 기준)	4,342억 루블
1인당 GRP (2023년 기준)	825,855루블

3)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ОСНОВН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24, 2024

1.2 자연환경



카렐리야 공화국은 러시아의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에서 핀란드와 723km의 국경을 접하고, 남쪽에서 레닌그라드 및 블로그다 주와, 북쪽에서 무르만스크 주와, 동쪽에서 아르한겔스크 주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면적은 약 18만 평방킬로미터로서 러시아 연방 총 면적의 1%를 점유하고 있으며 남북간의 길이는 660Km, 동서간은 424Km이다.

빙하시대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구릉과 평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동쪽에 백해가 있고 남쪽에는 라도가호(면적 17,700km²)와 오네가호(면적 9,900km²)가 위치해 있다. 공화국의 54.5%는 삼림지역이고 25%는 호수 및 하천으로서 호수가 총 61,000개,

강이 27,000개, 저수지 29개 등 수자원이 풍부하다. 빙하작용으로 지표의 퇴적물이 씻겨 내려가면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웅덩이와 돌출한 바위들로 인해 짧고 물살이 빠른 강들이 많이 있다.

삼림은 89%가 소나무와 전나무 등 침엽수림이고, 자작나무도 11%를 점하고 있다.

카렐리야 공화국은 대륙성 기후로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백해와 수많은 호수들의 영향으로 겨울에 따뜻하고 습한 날씨를 보이기도 한다.

연간 평균기온은 1월에는 -8도, 7월에는 16.4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연간강수량은 500mm 내지 700 mm이다. 연간 강수량의 대부분은 강설량이며 남부에 있는 라도가호 일대에서는 1,000mm에 이른다.



카렐리야 공화국의 숲과 강 전경(카렐리야 관광청)



호수(카렐리야 관광청)



침엽수림(카렐리야 관광청)



광물자원

카렐리야 공화국의 천연자원은 투자여건의 기본을 이루며 석유 및 가스 등의 자원은 없으나 임업자원, 광물자원, 수자원, 생물자원 등이 풍부하고 수송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어 외국자본의 투자여건이 용이한 편이라고 공화국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국토 전체 면적의 82%가 삼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삼림의 89%가 침엽수림, 11%가 자작나무 숲이다. 침엽수림 중 소나무가 590만 헥타르, 전나무가 230만 헥타르이고 자작나무는 100만 헥타르를 점하고 있으며, 목재 보유량은 약 9억 입방미터이고, 이 중 84%가 가공이 가능한 상태이다.

유용 광물자원에는 철광석, 티탄, 바나듐, 몰리브덴, 귀금속 재료, 다이아몬드 등 50여종이 넘으며, 기타 건설용 자재(대리석, 화강암 등), 세라믹 원료 등이 산출된다. 특히 최근 러시아 대도시에서 건설 붐이 일어남과 함께 각종 건설 원자재 및 가공품목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수자원으로 이용 가능한 산재된 호수



카렐리야에는 라도가 및 오네가 호를 비롯한 61,000개의 호수와 27,000개의 강, 그리고 29개의 저수지가 있다. 라도가 호는 유럽에서 가장 큰 호수로서 그 면적이 18,400km²이며, 평균수심은 51m이다. 오네가 호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로서 면적이 9,800km², 평균수심은 50m로서 양개 호수의 수질은 매우 맑아 음료, 위생, 공업용으로 적당하다. 카렐리야 공화국은 오네가 호의 85%와 라도가 호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양 호수가 카렐리야 공화국의 면적의 25%를 차지한다. 또한 카렐리야 공화국 내 13개소에서 지하수원이 개발되어 각종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야생 열매

러시아 과학원 생물학 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카렐리야 공화국에서 매년 생산되는 야생 열매의 양은 약 12만 톤에 달하며 이중 62,000톤은 식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150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매년 6천 톤을 식용 및 약재로 활용할 수 있다.⁴⁾

1.3 국가 상징

1.3.1 국기



카렐리야 공화국 국기(카렐리야 정부)

카렐리야의 국기는 1993년 2월 16일에 최고입법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국기는 직사각형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을 수평으로 3등분되어 있으며 가로 세로 비율은 3:2이다.

아래 두 줄을 구성하고 있는 초록색과 하늘색은 공화국의 자연환경, 즉 숲, 호수, 강 등을 나타내며 초록색은 자연, 식물 등 공화국의 기본적인 자산으로서 행복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의미한다. 파란색은 호수와 강을 나타내며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맨 위에 있는 빨간색은 민족의 힘과 용맹성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공화국의 전통적인 색을 의미한다. 이러한 삼색은 특정 민족 하나 또는 사회적인 그룹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주민들의 통합을 의미한다.

1.3.2 국장

카렐리야 공화국 문장은 위는 직사각형이고 아래는 원형으로 된 방패 모양으로서 주변에는 황금색으로 둘러싸여 있고, 속에는 국기와 같은 삼색기가 있으며, 앞에는 검은 색 곰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곰은 과거부터 핀-위구르족과 북부 거주민족들이 숭배해 온 동물로서 카렐리야인들의 노래, 동화, 민화 등에 자주 등장한다. 곰은 카렐리야인의 역사

4) www.kareliainvest.ru/ekonomicheskij_i_promyshlennyj_potentsial/ (검색일: 2017.6.23.)

적 기원인 노브고로드의 문장에도 나와 있다.

방패 위에는 8각형의 황금색 별이 있는데, 이는 영원과 안내, 삶의 근원, 번영, 행운, 풍부함, 부, 그리고 민족의 노력과 이상을 의미하며, 또한 보호 또는 부적을 상징한다. 방패의 틀은 전나무와 소나무를 의미하며 공화국 숲의 30%와 60%를 차지하는 삼림의 위대함과 그것이 부의 근원임을 상징한다.



카렐리아 공화국 문장(카렐리아 정부)

1.3.3 국가

카렐리아 국가는 알렉산데르 벨로보로도프 Alexander Beloborodov에 의해 작곡되었다. 러시아와 핀란드 사이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러시아어와 핀란드어로 된 두 개의 가사가 존재한다. 러시아어 작사는 아르마스 미쉘 Armas Mishin과 이반 코스틴 Ivan Kostin이며, 핀란드어 작사는 미쉘 단독으로 작성되었다. 국가 멜로디의 대부분은 핀란드 전통 가곡인 Karjalan kunnaila에서 따왔다. 2001년 12월부터 러시아어 작사만이 공식적으로 인정, 불리게 되었다.

러시아어	한국어
<p>Край родной — Карелия! Древняя мудрая земля. Братских племён одна семья, Карелия! Звените, озёра, и пой, тайга! Родная земля, ты мне дорога. Высоко на сопках твоих стою И песню во славу тебе пою.</p>	<p>나의 고향 카렐리아! 예로부터 전해 온 현자의 땅. 형제 민족들의 한 가족, 카렐리아! 호수여, 울려라, 숲이여, 노래하라! 나의 조국, 너는 내게 값지다. 너의 산등성이 위에 높이 서서 너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p>
<p>Край родной — Карелия! Ты мне навек судьбой дана. Здравствуй в веках, моя страна, Карелия! Герои былин средь лесов и гор Живут на земле нашей до сих пор. Лейся, песня! Кантеле, звонче пой Во имя карельской земли святой!</p>	<p>나의 고향 카렐리아! 너는 영원한 나의 운명의 땅. 나의 나라 카렐리아여, 세세무궁 안녕하기를! 옛 이야기 속 영웅들은 숲과 산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 땅에 살고 있다. 노래여 울려라! 칸텔레여,⁵⁾ 더 우렁차게 울려라, 신성한 카렐리아 지의 이름으로!</p>
<p>Край родной — Карелия! Рун и былин напев живой. Вижу рассвет лучистый твой, Карелия!</p>	<p>나의 고향 카렐리아! 영웅을 찬양하는 옛 노래의⁶⁾ 생생한 가락. 카렐리아여, 나는 너의 밝은 여명을 본다! 카렐리아여, 나는 너의 눈부신 여명을 본다!</p>

Вижу рассвет лучезарный твой,
Карелия!

II. 역사

카렐리야 지역에 인류가 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7,000년 내지 6,000년이며 당시 그들의 기본 생활방식은 사냥과 어로활동이었다. 기원전 1,000년 전에는 철의 제조, 농업과 목축이 태동하였다. 기원전 100년경에는 핀-위구르 족 등의 종족들이 라도가호 일대 및 카렐리야 남부지역에 살고 있었다.

9세기경 키예프 공국의 발생과 함께 카렐리야 공화국은 그 영향력 하에 들어갔으며, 12세기에 키예프 공국이 멸망 시에는 노브고로드 공국의 일부가 되었다. 1227년 노브고로드 영주 야로슬라브는 카렐리야인들에게 러시아 정교의 세례를 베풀었다.

1478년에는 제정 러시아에 편입되었으며 이후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스웨덴이 동쪽으로 확장을 계속한 결과 카렐리야 남부지역 일부(카렐스키 페레세예크)이 스웨덴의 통치하에 들어갔으나, 북방전쟁 이후 1721년 뉘스타드 조약에 따라 러시아 제국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피터 대제 1세 때부터 공장을 건설하여 전쟁 시에 중요한 군수산업을 담당하기도 하였으며 18세기 후반에는 목재 가공 등 상업이 발달하였고, 19세기에 오네가 호 및 백해 일대에 기선운행이 시작되었으며, 20세기 초부터 산업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914-1916년에 무르만스크 철도 완공과 함께 경제 및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1917년 11월부터 1918년 4월까지 소비에트 권력이 형성되었다. 1918년 봄부터 시민전쟁이 시작되어 1920년에 결국 적군의 승리로 끝이 났다. 1920년 6월에 '노동코뮌'이 형성되고 1921년 2월에 카렐리야 소비에트, 1923년 7월에 카렐리야 자치공화국이 성립되었다. 1939년부터 1940년의 소비에트-핀란드 전쟁 결과 서 카렐리야를 합병하여 소비에트 연방 구성 공화국의 하나인 카렐로-핀 공화국으로 승격이 되었다. 합병된 지역은 초기 카렐로-핀 공화국에 속했으나, 계속전쟁 이후 카렐리야 지협(地峽)은 레닌그라드 주의 행정구역에 포함되었다.

1941년부터 1945년 사이 제2차 대전 기간에는 대부분의 영토가 핀란드와 독일의 점령하에 들어가 있었으며 소비에트 군대와 카렐리야 민족의 파르티잔식 전쟁으로 결국 지역을 해방시키는데 성공하였다. 1956년에 다시 러시아 공화국 내의 자치공화국 수준으로 격하되었으며, 소연방 해체시점인 1991년 11월 13일 카렐리야 공화국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핀란드는 카렐리야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고, 공식적으로도 다루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카렐리야 문제"는 핀란드 정치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문제로 남아있다.

5) 카렐리야와 핀란드의 전통 악기로 독일의 치터, 러시아의 구슬리와 유사한 형태를 띠는 것으로 편평한 목판 위에 30여 개에 이르는 금속 줄을 연결한 현악기이다.

6) руны(runes)는 카렐리야와 에스토니아 등, 발트해 연안국과 핀란드 지역에서 전승되는 노래로 된 민간의 영웅이야기로 흔히 전통 악기인 칸텔레의 반주에 맞추어 연주된다.

III. 정치

카렐리야 공화국에서 국가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을 기반으로 실행된다. 각 권력기관은 독자적이며, 공화국은 러시아연방의 헌법을 기반으로 하여 연방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공화국의 최고 지도자이자 행정 수반은 임기 5년의 대통령이다.

3.1 대통령⁷⁾



아르투르 올레고비치 파르벤치코프 현 대통령은 1964년 11월 29일 페트로자보츠크에서 출생했다. 1987년 레닌그라드주립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해 카렐리야 공화국의 올로네츠 지방 검찰청에서 부검사보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1988년부터는 카렐리야 공화국의 올로네츠 지방 검찰청 수사관으로 근무하고, 1991년부터 카렐리야 공화국 소르타발라의 부장검사,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페트로자보츠크 시의 검사로 임명되는 등 법조계 주요 보직을 담당했다. 2006년부터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연방집행관국 국장 및 수석집행관으로 활동하였고, 2007년에는 연방집행관국 부국장 및 러시아 연방 부수석집행관으로, 2008년에는 연방집행관국 국장 및 러시아 연방 수석집행관으로 대통령령에 의해 임명되었다

2017년 2월 15일에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에 따라 카렐리야 공화국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되었으며, 같은 해 9월 10일 지방선거에서 61.34%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9월 25일 정식으로 공화국 수반으로 취임하였다. 이후 2022년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된 수반 선거에서도 69.15%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여 9월 26일 다시 수반직에 올랐다. 현재 그는 러시아 연방의 국가법무고문으로 재직 중이며, ‘명예훈장’ 및 ‘조국공로 훈장 2등급’ 메달을 수훈하였고, 러시아 연방 명예변호사, 법무부 공로자, 검찰청 공로자 칭호를 보유하고 있다.

7) <https://gov.karelia.ru/power/executive/leader/> (검색일: 2025.6.24.)

3.1.1 역대 대통령

세르게이 레오니도비치 카타난도프⁸⁾ (Sergey Leonidovich Katanandov, 2006~2010)



1955년 페트로자보드스크에서 출생하여 페트로자보드스크 국립대학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하였으며, 페트로자보드스크시 의회 의원, 시장을 역임하였으며 1998년부터 공화국의 수장으로 있다. 2006년 3월 3일 푸틴 대통령의 추천 및 공화국 의회의 승인으로 2010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안드레이 비탈레비치 넬리도프⁹⁾ (Andrey Vitalyevich Nelidov, 2010~2012)



1955년 레닌그라드(현 상트 페트르부르크)에서 출생, 산업공학을 전공했으며 1996년 레닌그라드 주 부주지사 및 삼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2001년 레닌그라드 주 주의회 의원으로 활동했고, 2004년 의회 부의장직을 수행했다.

2010년 6월 카렐리야 공화국 대통령이던 카타난도프의 사임 후 대통령 대행으로 선출되었고, 그해 7월 정식으로 지명되어 2012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알렉산드르 페트로비치 후딜라이넨¹⁰⁾ (Александр Петрович Худилайнен, 2012~2017)



카렐리야 공화국 대통령 알렉산드르 페트로비치 후딜라이넨은 1956년 즐로비노(트베리주) 출생으로, 1979년 레닌그라드 기술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뒤 레닌그라드 주 레프네호트 공장에서 기술자로 근무했다. 2012년 5월 22일 대통령령에 의해 3대 카렐리야 공화국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되었고, 이틀 뒤인 24일 공화국 의회의 승인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지난 2017년 초 노후 주거지 개선을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8) gov.karelia.ru/ (검색일: 2017.6.23)

9) gov.karelia.ru/ (검색일: 2017.6.23)

10) gov.karelia.ru/ (검색일: 2017.6.23)

3.2 행정부¹¹⁾

행정부는 13개 부, 3개의 국가위원회, 5개의 청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건부, 교육 및 체육부, 천연자원 및 생태부, 농수산부 등이 있으며, 위원회 및 청은 국가정책 목표에 의거 지역 자치발전, 관광, 정책, 안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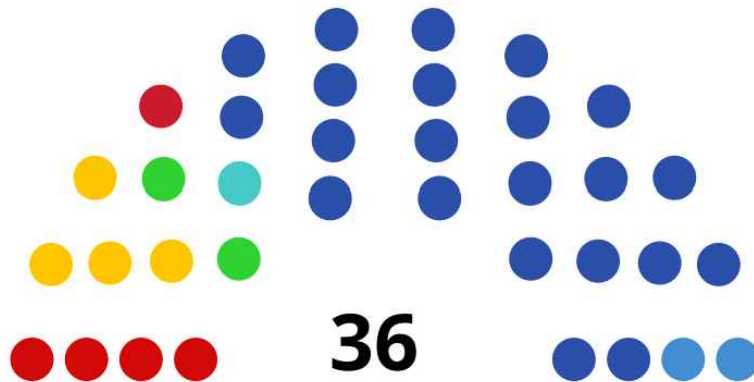
성명	직위
이그나찌에바 타티아나 파블로브나	부통령
악스로프코프 미하일 예고로비치	보건부장관
레소넨 알렉세이 니콜라이비치	문화부장관
카르마지나 나탈리야 블라디미로브나	교육 및 체육부장관
스비드스카야 야니나 세르게예브나	천연자원 및 생태부장관
팔키나 올가 빅토로브나	농수산부장관
소콜로바 올가 알렉산드로프나	사회보호부장관
클리모쉬킨 알렉산드르 콘스탄티노비치	재무부장관
로마코 알렉산드르 블라디미로비치	경제개발산업부장관
키셀료프 세르게이 빅토로비치	국정정책부장관
페도리슈프 알렉산드르 레오니도비치	건설·주택공공서비스·에너지부장관
크릴로프 드미트리 안드레예비치	도로관리·교통·통신부장관
셰드레츠키 세르게이 바실예비치	토지자산부장관
아스타호바 스베틀라나 예브겐예브나	산업통상부장관
폴리아코프 알레그 예브게네비치	공공안정국가위원회 위원장
켄제예프 울란 아이소비치	관세위원회 위원장
베르틴스키 그리고리 그리고르예비치	건설·주택·도로 감독 국가위원회 위원장
구르토바 빅토리아 콘스탄티노브나	문화유산보호청
그로보프 블라디미르 니콜라예비치	법원행정지원청
티모페예바 타티야나 블라디미로브나	시민등록관리청
프롤로바 엘레나 예브겐예브나	고용노동청

11) <https://gov.karelia.ru/power/executive/> (검색일: 2025.6.24.)

3.3 입법부¹²⁾

카렐리야 공화국의 입법부는 단원제 형태의 의회인 ‘법률제정의회(Legislative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arelia)’로, 총 3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의원은 혼합선거제를 통해 선출되며, 이 중 절반은 지역구 소선거구에서, 나머지 절반은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현행 제7대 의회는 2021년 선거를 통해 구성되었고,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United Russia)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공산당(CPRF), 정의러시아당, 자유민주당(LDPR), 야블로코당, 새로운사람들(New People) 등 다수 야당이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다당제 구조를 보인다. 의회 의장은 엘리산 산달로비치(Elissan Shandalovich)로, 2021년 10월 6일 선출되었다. 1990년대에는 양원제가 시행되었으나 2002년 이후 단원제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입법 기능 외에도 지역 행정에 대한 견제 및 통제를 수행한다.

2021년 카렐리야 공화국 의석 분포



- 통합러시아당(ЕДИНАЯ РОССИЯ) - 22석
- 러시아공산당(КПРФ) - 4석
- 정의러시아당(СПРАВЕДЛИВАЯ РОССИЯ) - 4석
- 러시아자유민주당(ЛДПР) - 2석
- 야블로코당(Яблоко) - 2석
- 새로운 사람들(РППСС) - 1석
- 러시아 사회정의연금당(РППСС) - 1석

¹²⁾https://en.wikipedia.org/wiki/Legislative_Assembly_of_the_Republic_of_Karelia(검색일: 2025.6.24.)

3.4 사법부¹³⁾

카렐리야 공화국의 사법부는 러시아 연방의 일반관할 법원 체계에 속한 다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공화국 내 최고 사법기관인 카렐리야 공화국 최고법원(Верховный суд Республики Карелия)은 형사, 민사, 행정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뿐 아니라 하위 18개의 지방 법원과 34개의 평판사(мировые судьи)가 내린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심 기능을 수행하며, 연방 최고법원에 종속된다. 카렐리야 공화국 헌법재판소(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Республики Карелия)는 1994년 설치되어 지역의 헌법 및 법령에 대한 위헌 심사를 담당하였으나, 2021년 2월 지역 법령 개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이로써 현재 사법부는 오로지 일반관할 법원 중심으로 운영되며, 연방 법원의 감독 아래 지역 내 법치주의 유지와 행정·입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3)

https://ru.wikipedia.org/wiki/%D0%92%D0%B5%D1%80%D1%85%D0%BE%D0%B2%D0%BD%D1%8B%D0%B9_%D1%81%D1%83%D0%B4_%D0%A0%D0%B5%D1%81%D0%BF%D1%83%D0%B1%D0%BB%D0%B8%D0%BA%D0%B8_%D0%9A%D0%B0%D1%80%D0%B5%D0%BB%D0%B8%D1%8F (검색일: 2025.6.24.)

3.6 대통령 선거 동향

3.6.1 2012년 대선¹⁴⁾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별 득표율>

후보	러시아 연방	카렐리야 공화국
푸틴 Путин,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63.60%	55.38%
쥬가노프 Зюганов, Геннадий Андреевич	17.18%	16.47%
프로호로프 Прохоров, Михаил Дмитриевич	7.98%	12.22%
지리노프스키 Жириновский, Владимир Вольфович	6.22%	8.59%
미로노프 Миронов, Сергей Михайлович	3.85%	6.1%

2012년 3월 4일의 대통령 선거 카렐리야 공화국 후보별 지지율을 보면 블라디미르 푸틴 현 대통령이 55.38%로 다른 후보들에 비하여 압도적이었지만, 러시아연방 전체에서의 득표율 63.6%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반면에 러시아연방 전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득표율을 보인 프로호로프, 지리노프스키, 미로노프 후보는 카렐리야 공화국에서 보다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3.6.2 2018년 대선

<2018년 대통령 선거 후보별 득표율>

후보	러시아 연방 ¹⁵⁾	카렐리야 공화국 ¹⁶⁾
푸틴 Путин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76.69%	73.04%
그루지닌 Грудинин Павел Николаевич	11.77%	11.35%
지리노프스키 Жириновский Владимир Вольфович	5.65%	7.83%
소브차크 Собчак Ксения Анатольевна	1.68%	2.28%
야블린스키 Явлинский Григорий Алексеевич	1.05%	1.76%

카렐리야 공화국에서 시행된 2018년 3월 18일 러시아 대통령 선거 결과를 종합 분석하면, 카렐리야는 전국 평균 투표율(67.5%)에 비해 낮은 57.2%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나, 블라디미르 푸틴 현 대통령은 총 득표율 73.04%로 과반을 크게 상회하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공산당 후보 파벨 그루지닌이 11.35%로 2위에 올랐고, 자유민주당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는 7.83%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전국적 지지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카렐리야 내에서도 여당의 우위가 분명히 유지되었음을 보여주며, 낮은 투표율은 지역 내 정치적 무관심 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선거 동기를 시사하는 바가 있다.

14) <https://www.electoralgeography.com/new/en/countries/r/russia/russia-presidential-election-2012.html> (검색일: 2025.6.24.)

15) <https://www.interfax.ru/elections2018/604908> (검색일: 2025.6.24.)

16) <https://www.rbc.ru/politics/18/03/2018/5aa652d49a79470accef8c29> (검색일: 2025.6.24.)

3.6.3 2024년 대선

<2024년 대통령 선거 후보별 득표율>

후보	러시아 연방 ¹⁷⁾	카렐리야 공화국 ¹⁸⁾
푸틴 Путин,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87.28%	79.53%
하리토프 Харитонов, Николай Михайлович	4.31%	4.76%
다반코프 Даванков, Владислав Андреевич	3.85%	8.38%
슬루츠키 Слуцкий, Леонид Эдуардович	3.20%	5.02%

2024년 대선에서 카렐리야 공화국은 연방 전체와 다른 특징을 보여 주목을 받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 블라디미르 푸틴, 레오니드 슬루츠키, 니콜라이 하리토노프가 후보로 등록되었으며, 푸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87.28%의 득표율로 압승했다. 반면, 카렐리야에서는 푸틴이 79.53%를 득표해 다소 낮은 결과를 기록했으며, 다반코프가 8.38%, 슬루츠키 5.02%, 하리토노프 4.76%를 각각 얻었다. 투표율도 전국 평균인 77.49%에 비해 낮은 60.08%에 머물렀다.

정치학자 예브게니 민첸코는 카렐리야에서 선거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전통적으로 낮은 선거 동원 능력이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아나톨리 치간코프는 지역 정치의 활발한 논쟁과 온라인 여론 활동, 그리고 지역 정부에 대한 비판이 투표율에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다반코프가 높은 득표율을 보인 배경으로는 대도시 유권자의 반정부 성향, 젊은 유권자와 보리스 나제딘 지지층의 이탈, 그리고 해외 러시아 유권자의 지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되었다. 실제로 푸틴은 해외 투표소 중 42곳에서 다반코프에게 패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의 카렐리야 내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55.38%) 대비 2024년(79.53%)에는 24.15%p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지역 정부 내 중대한 인사 교체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파르펜치코프 현 수반은 정치적으로 다소 취약한 위치에 있지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와 같은 연방 엘리트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지역 내 야당 분위기를 감안한 현실적인 과업이 설정된 만큼, 선거 책임자에 대한 일부 질책은 있을지라도 광범위한 인사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¹⁹⁾

17) <https://www.interfax.ru/elections2018/604908> (검색일: 2025.6.24.)

18) <https://ria.ru/20240318/putin-1933946880.html> (검색일: 2025.6.24.)

19)

<https://karelinform.ru/news/2024-03-27/unikalnyy-region-eksperty-prokommentirovali-itogi-vyborov-prezidenta-rf-v-karelii-5033180> (검색일: 2025.6.24.)

IV. 경제

4.1 경제개관²⁰⁾

카렐리야 공화국은 러시아 북서연방관구에 속한 자연자원 중심의 산업 지역으로, 산업 구조와 생산 특성에서 연방 평균과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다. 2022년 기준 지역총생산(GRP)에서 주요 경제활동 비중은 광물자원 채굴업(16.4%)과 제조업(13.3%)이 가장 높으며, 그 외 부동산 거래(10.7%) 및 국가 행정 및 국방·사회보장 활동(10.1%)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역의 자원 의존적 경제구조와 함께 행정 및 공공부문의 상대적 비중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정자산 투자 자금 조달에서 자체 자금이 54.7%, 외부 자금이 45.3%를 차지했으며, 총 투자 규모는 약 1조 2,585억 루블로 집계되었다. 산업생산지수는 전년 대비 100.2%로 소폭 증가하였고, 주요 부문별로는 광물 채굴업(100.9%)과 전력·가스·증기 공급업(101.6%)이 안정세를 보인 반면, 제조업은 98.3%로 소폭 감소하였다.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부문은 133.7%로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카렐리야는 러시아 내 주요 광물자원 및 산림자원 생산지로, 철광석 농축물, 펄프·종이·골판지 생산에서 전국적으로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민물 양식업 기반의 수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러시아 내 신선 및 냉장 민물 생선 생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농업 부문에서는 낙농 및 육류 중심의 축산업이 주력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소매유통 부문에서는 총매출이 1조 8,530억 루블로 전년 대비 실질 기준 112.2% 증가하였으며, 1인당 소매유통액 기준으로는 러시아 내 17위를 차지하였다. 전체 유통 구성에서 식품(음료 및 담배 포함)이 51.3%, 비식품이 48.7%의 비중을 기록하였다. 외식업 매출은 1,220억 루블로, 실질 기준 전년 대비 129.1% 증가해 회복세를 보였다. 또한 지역 내 기업들의 순이익(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값)은 3,540억 루블을 상회하였다.

카렐리야의 경제는 여전히 자원 기반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일정 부분에서 산업 다각화 및 서비스 부문의 확대가 진행 중이다. 동시에 민간 투자와 연방 지원의 균형을 통해 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치 및 EU 국경 인접성으로 인해 향후 경제·물류 전략의 중요 거점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카렐리야 공화국 GRP 변화²¹⁾

(단위: 백만 루블)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GRP	248,140	270,802	300,977	319,050	322,803	447,564	392,693	434,291

카렐리야 공화국의 지역총생산(GRDP)은 자원 중심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러시아 북서연방관구 내에서 중위권의 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GRDP는 약 4,343억

20)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ОСНОВН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2024, 2024

21) росстат, Валовой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одукт по субъекта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6-2023 гг., 2024

루블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으며, 1인당 부가가치는 825,856루블에 달해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 구성에서는 광물자원 채굴(16.4%)과 제조업(13.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10.7%) 및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부문(10.1%)이 뒤를 이었다. 자본 형성 측면에서 고정자산 투자의 54.7%는 자체 조달, 45.3%는 외부 차입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 자립성과 외부 의존의 균형을 보여준다. 산업적으로는 철광석 농축물, 펄프 및 제지 생산, 민물 양식업 등에서 전국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광 및 소비 서비스 부문의 성장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57.1%로 연방 평균을 하회하고 있어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고용 활성화가 과제로 지적된다. 전반적으로 카렐리아의 GRDP는 천연자원에 기반한 산업 구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점진적인 산업 다각화와 서비스화 경향을 나타내며 지역 경제의 회복성과 전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4.2 주요 산업

4.2.1 임업

카렐리아 공화국의 대표적인 산업은 임업으로,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임업의 세부 산업으로는 목재가공업, 목재가공설비제조업, 셀룰로오스, 제지산업, 펄프산업 등이 포함된다. 카렐리아는 러시아 전체 종이 생산의 24%, 신문용지 생산의 35%, 펄프의 59%, 사무용 가구의 6%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생산량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카렐리아 공화국의 임업은 지역 경제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통계상 약 1,490만 헥타르의 임야 중 94%가 국영 임업기금에 속해 있다. 이 중 926만 헥타르가 숲으로 덮여 있으며, 수종 구성은 소나무(65%), 가문비나무(25%), 자작나무(10%)가 주를 이루며 수종립은 전체 벌채량의 약 90%를 차지한다. 2021-2022년 사이 평균 벌채율은 연간 약 38,000헥타르로, 벌채 면적은 지역 전체의 0.22%에 불과하며, 벌채 형태는 비교적 대규모 간벌에 치우쳐 있다. 임업 시험의 생산량은 약 610만^m로, 이는 전국 벌채량의 2.8%에 해당하며, 북서연방권구 내에서는 주요 상위권을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경제체재로 인해 유럽산 장비의 부족 및 기술 의존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며, 산업용 활엽수의 파잉 축적과 가공 능력 부재는 임업 구조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한편, 국영 임업 기관과 임대업체는 산림 벌채와 복원 비율을 1:1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으며, 2024년 기준 2,070만 본 이상의 묘목을 육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²²⁾



카렐리아의 임업(카렐리아 정부)

22) <https://geonovosti.terratech.ru/ecology/vyrubki-rossiya-finlyandiya/> (검색일: 2025.6.24.)

4.2.2 광업

카렐리야 공화국의 광업은 지역경제의 중추로서, 러시아 북서연방관구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광물 채굴 부문이 산업 생산 전체에서 약 36%의 비중을 차지하며, 공화국의 전체 GRDP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화강암, 사암, 기타 장식·건축용 석재의 생산량은 연간 3,920만 톤, 파쇄석 등 건설용 골재는 280만^m에 달해, 카렐리야는 철도 수송 기준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중요한 비금속 광물로는 석영, 장석, 운모, 숭기트(Shungite) 등이 있으며, 석영은 반도체·고순도 첨가제 산업에, 숭기트는 세계적으로 희귀광물로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원이다. 또한 모르브덴, 티타늄, 니켈, 백금족(PGM), 크롬 등의 광산(예: Lobash, Pudozhsky, Aganozersky, Shalozersky)이 운영 중이며, 일부는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산업고용 측면에서도 약 8천 명이 광산업에 종사하며, 2024년 공화국 예산에 납부된 광업 관련 세금은 전년 대비 20.7% 증가했다. 이처럼 카렐리야의 광업은 자원 다양성, 생산량, 경제적 파급 효과 면에서 명백한 경제적 핵심 부문으로 인정되며, 향후에도 신속한 탐사, 인프라 투자, 가치 사슬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요구된다.



카렐리야의 광업(카렐리야 정부)

4.2.3 기계제조업



카렐리야의 기계제조업(카렐리야 정부)

소비에트 시기부터 카렐리야는 임업 장비, 제지 장비,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수운 장비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위치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들 산업의 대다수가 급격한 축소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카렐리야 기계제조업의 전망은 공화국 내의 장비 현대화 및 재건, 새로운 제품 개발, 시장 확대, 생산품의 효율성 제고 등과 관련되어 있다. 상기 두 분야의 산업과 마찬가지로 기계제조업 역시 노동력 부족 현상에 당면한 상태이며, 이외에도 외국 기업

과의 경쟁 역시 극복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카렐리야 내 가장 큰 기계제조 기업 중 하나인 ‘페트로자보드스크매쉬’는 국영 기업인 로스아톰과의 합병에 따라 원자력 공업 장비 생산을 증대할 예정이며, 기존에 생산하던 펄프 및 제지 장비와 석유 산업 장비 역시 지속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임업 기계 장비 생산의 대표적인 기업은 ‘오네가 트랙터 플랜트’로 덴마크의 ‘실바테크’사와 공동으로 새로운 벌목 장비를 제작, 생산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설비의 제작을 바탕으로 카렐리야 공화국 내 목재 산업 클러스터를 구상 중에 있다.이외에도 ‘오네가 조선소’는 새로운 선적 개발과 이와 관련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4.2.4 농수산업

카렐리야 공화국의 농수산업은 남다른 지역 특성을 보이며, 특히 양식업과 농업에서 전략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2024년 양식업에서는 트라우트 양식업체가 약 33,500톤의 어획량을 기록했지만, 전년 대비 12% 감소했으며, 이는 주로 치어 및 사료 공급 차질 때문이다. 반면, 양식업 세수는 475백만 루블을 기록하며 45% 증가했고, 자체 가공 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은 전체 상업 양식 어획량의 절반 이상(11,900톤)을 자급자족 처리하는 등 부가가치 강화가 두드러졌다. 신규로 컨테포가 지역에 50,000톤 규모의 사료공장을 건립함에 따라, 수입 의존 축소와 함께 지역 내 수산기반 산업의 구조적 전환이 진행 중이다. 디지털 기술 도입 또한 활발하여, 카렐리야 지역 내 43개 트라우트 양식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IoT·AI 기반 스마트 양식 도입 의지가 높으며 정부의 정책 지원 필요성도 드러났다. 농업 측면에서는 기후 제약에도 불구하고 2023년 농업부문의 투자 대출이 약 54억 루블로 전년 대비 11배 증가하였고, 축산(낙농 및 육류 중심)의 현대화 시설도 구축되며 농수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²³⁾

4.2.5 관광업



카렐리야의 관광업(카렐리야 관광청)

카렐리야는 영토의 50%가 삼림지역이고 26%가 호수 및 하천 지역으로 자연경관이 뛰어나며 역사적인 건축물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 세계 각국으로부터 관광객들이 왕래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약 5,000년 전 고대 인종들이 새겨 놓은 암석 위의 형상들과, ‘키바치’의 폭포, 각종 호수들과 백해로 연하는 도로 및 철도 주변의 경관, 아름다운 러시아 정교의 교회들, 가파른 계곡에서의 래프팅, 호수 및 하천에서의 낚시 등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이 있다.

카렐리야 공화국의 관광업은 2023년 한 해에 1.5 백만 건의 관광 여정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급성장했으며, 2024년에는 이미 100만 건을 초과했고 지역 예산에 4.74억 루블의 세수 기여를 이뤄냈다(약 22.6% 증가). 2024년 기준, 러시아 관광 투자 순위에서 26위를 유지했으며 북서연방관구 내 주요 관광지로 인정되었다. 특히 생태관광 분야가 두드러지는데, 키지 섬을 중심으로 한 자연 유산과 사바나 하이킹, 래프팅, 겨울철 개·순록 썰매 투어 등이 대표적 사례다. 관광 포화에 따른 자연환경 영향도 우려되면서, 최적의 수용력을 고려한 과학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북극권 접경 지역에서는 국립공원 기반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이 부활과 지역 사회 고용 강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2030년까지 관광객 수를 연 300만 건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카렐리야에는 두 개의 자연보호구역(키바치, 코스토묵쉬스키)와 세 개의 국립공원(파아나야르비, 보드로제르스키, 칼레발라)가 위치해 있다.²⁴⁾

23)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25/06/27/russian-firm-opens-new-50000t-aquafeed-plant-in-karelia/> (검색일: 2025.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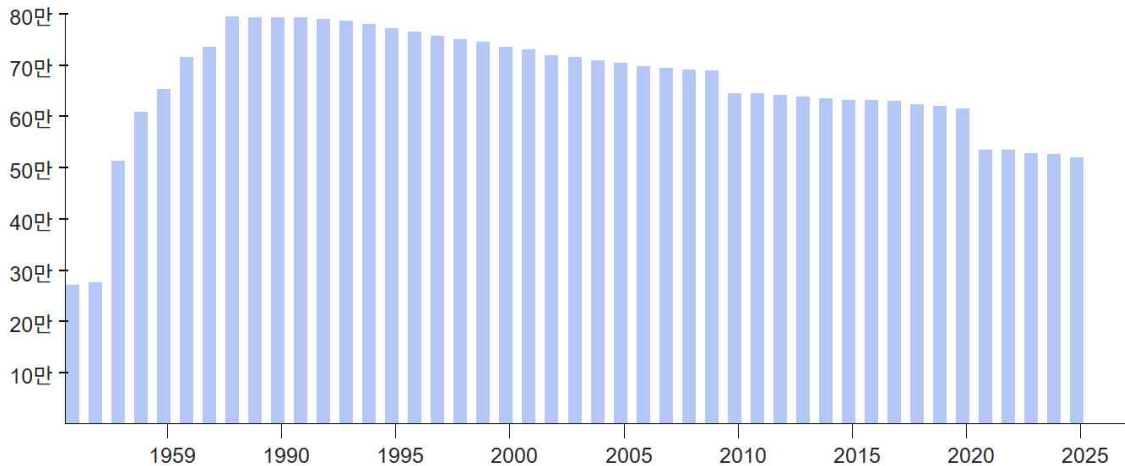
V. 사회문화

5.1 인구 및 민족구성²⁵⁾

카렐리야 공화국의 인구는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약 52만 4천 명이다. 이중 도시 거주 인구는 약 41만 8천 명으로 약 80%를 점하며, 농촌 인구는 10만 5천 명으로서 20%를 차지한다. 수도 페트로자보츠크에 사는 인구는 23만 5천 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밀도는²⁶⁾ 평방킬로미터당 약 2.9명이다.

민족구성은 러시아인(86.4%), 카렐리야인(5.5%), 벨로루시인(2.0%), 우크라이나인(1.2%) 핀란드인(0.7%) 뱍스인(0.5%)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케랄리야 공화국을 구성하는 민족들로 아르메니아인, 타타르인, 아제르바이잔인 등이 있으며, 이들은 전체 카렐리야 민족의 3.7%를 차지한다.

연도별 인구변화 추이²⁷⁾



24)

<https://sampotv360.ru/2024/01/23/kareliya-stala-odnim-iz-populyarnyh-napravlenij-dlya-turizma-v-no-vyj-god/> (검색일: 2025.6.24.)

25)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ОСНОВН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2024, 2024

26)

27)

https://ru.wikipedia.org/wiki/%D0%9D%D0%B0%D1%81%D0%B5%D0%BB%D0%B5%D0%BD%D0%B8%D0%B5_%D0%9A%D0%B0%D1%80%D0%B5%D0%BB%D0%B8%D0%B8 (검색일: 2025.6.24.)

카렐리야 공화국 출생률 및 사망률²⁸⁾

(인구 1,000명 당 출생 및 사망 수)

연도	2005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출생률	10.2	12.1	12.8	9.5	9.6	8.2	8.1
사망률	18.5	16.2	16.0	18.6	23.2	18.2	16.5

현재 카렐리야 공화국에 거주하는 인구 52만 명은 전체 러시아 인구의 약 0.35%에 해당한다. 카렐리야 인구는 소연방 해체 직전인 1990년까지만 해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해체 직후인 1991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출산율과 사망률은 2015년까지 증가세와 감소세를 반복적으로 나타냈으나, 2021년을 기점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 사망률은 21년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22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5.2 행정구역

카렐리야 공화국 행정구역²⁹⁾



2023년 기준, 카렐리야 공화국의 행정구역은 2개의 Городские округа(시), 4개의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круга(구), 12개의 Муниципальные районы(군)로 이루어져 있다.³⁰⁾

28)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ОСНОВН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24, 2024

29) gov.karelia.ru/ (검색일: 2017.6.23.)

주요 도시로는 주도 페트로자보츠크 외에도, 코스토무크샤와 소르타발라, 세계즈스키, 메드베지예고르스크 카렐리안 등이 있다.

수도 페트로자보츠크는 오네가 호에 접해 있으며 인구는 23.5만이며, 표트르 1세에 의해 1703년에 건설되었다. 목재 가공, 수산업, 조선업, 식품공업 등이 발달해 있고 철도 및 도로 교통, 수상교통의 중심지이다. 1931~1933년에 건설된 백해-발트 운하(227km)를 통해 백해 연안의 벨로모르스크에서 오네가 호까지, 오네가 호에서 라도가 호, 라도가 호에서 발트해까지 연결이 되어 주변 지역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5.3 언어

카렐리야어는 핀란드와 매우 유사하다. 특히 최근 몇몇 학자들은 카렐리야어를 핀란드어의 방언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부 카렐리야어는 핀란드와 상이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고, 별개의 언어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1940년 겨울전쟁 이후부터 페레스트로이카가 시행된 1980년대까지 카렐리야 내에서 핀란드어가 제2공용어로 활용된 바 있다. 200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어가 유일한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으나 카렐리야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또한 카렐리야인, 뱁스인, 핀란드인들이 구사하는 핀란드어를 제2공용어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공식석상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

5.4 문화

카렐리야에는 카렐리야족, 핀족, 뱁스족이 과거에 거주하였던 지역에 역사적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특히 발람스크의 건축물, 키지 섬의 박물관, 칼레발 군의 민속촌 등이 유명하다. 2006년을 역사 문화유산의 해로 선포하여 대대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등 정부 주도하에 문화재 발굴 및 보존, 관광지 조성사업 등이 활발하다.

카렐리야 건축의 특징 중의 하나로서 순수한 목재 만을 이용하여 못을 사용하지 않고 건축한 목조교회(프리오브라젠스카야)가 키지 섬에 위치하고 있다.

5.4.1 건축물

카렐리야의 가장 유명한 건축물은 키지섬의 목조 성당이다. 키지섬은 본래 이교도들이 종교 의식을 치르던 곳으로, 12세기 러시아 식민주의자들이 정착한 뒤 기독교 교구를 세웠다.

30)

https://ru.wikipedia.org/wiki/%D0%90%D0%B4%D0%BC%D0%B8%D0%BD%D0%B8%D1%81%D1%82%D1%80%D0%B0%D1%82%D0%B8%D0%B2%D0%BD%D0%BE-%D1%82%D0%B5%D1%80%D1%80%D0%B8%D1%82%D0%BE%D1%80%D0%B8%D0%B0%D0%BB%D1%8C%D0%BD%D0%BE%D0%B5_%D0%B4%D0%B5%D0%BB%D0%B5%D0%BD%D0%B8%D0%B5_%D0%9A%D0%B0%D1%80%D0%B5%D0%BB%D0%B8%D0%B8#%D0%9C%D1%83%D0%BD%D0%B8%D1%86%D0%B8%D0%BF%D0%B0%D0%BB%D1%8C%D0%BD%D1%8B%D0%B5_%D1%80%D0%B0%D0%B9%D0%BE%D0%BD%D1%8B_%D0%B8_%D0%B3%D0%BE%D1%80%D0%BE%D0%B4%D1%81%D0%BA%D0%B8%D0%B5_%D0%BE%D0%BA%D1%80%D1%83%D0%B3%D0%B0 (검색일: 2025.6.24.)

"주님의 거룩한 변모" 대성당은 22개의 그림 같은 양파모양 돔을 떠받치고 있으며, 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설계한 박공과 그 밖의 환상적인 장식을 자랑한다. 9개의 돔을 올린 "전구(傳求)의 교회"는 이콘으로 가득하며, 14세기에 지어진 "라자루스의 부활" 교회는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성당이다. 또 대천사 미카엘 예배당도 있다. 이 건물들을 짓는 데 못 하나, 쇠붙이 하나 쓰지 않았고, 대신 성경 구절을 깨알같이 새겨 넣은 통나무와 나무로 만든 부품을 맞물려 구조물을 지탱한다.³¹⁾



솔로베츠키 수도원(카렐리아 관광청)

발람(Valaam) 섬은 카렐리아 남동부에 라도가 호수에 위치한 섬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곳으로, 섬에 위치한 발람 수도원이 유명하다. 스웨덴, 핀란드 등에 속한 곳이었으나, 1940년 카렐리아가 소련에 귀속되면서 공산정권의 핍박을 피해 많은 유물을 가지고 성직자들이 핀란드로 떠났다고 한다. 발람섬은 발람 수도원과 함께 어우러진 뾰뾰한 침엽수림 및 라도가 호수 등이 어우러져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끝으로 솔로베츠키 제도는 백해의 서쪽, 카렐리아와 아르한겔스크 주 경계에 위치한 6개 섬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수도회가 이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교회 몇 채는 16세기~19세기에 지어졌다. 솔로베츠키 수도원은 1430년대에 키릴로 벨로제르스크와 발람 수도원에서 온 3명의 수도사가 설립했다. 솔로베츠키 수도원은 노브고로드 공국의 지배를 받다가 이후 모스크바의 보호 아래로 들어갔다. 16세기 석조 요새가 건설되면서 솔로베츠키 섬은 전 지역의 경제, 종교, 군사 그리고 문화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혁명으로 수도원이 폐쇄되고 '솔로프키' 국영 농장으로 바뀌면서 과일 재배는 중단되었다. 1923년에는 국영 농장도 폐쇄된 뒤, 목조 오두막에 정치범과 일반 죄수를 구금하는 특별 수용소가 되었고, 1990년에 수도원으로 복원되었다.³²⁾



키지 수도원(카렐리아 관광청)



발람 수도원(카렐리아 관광청)

31) 헬렌 아놀드, 박누리 옮김, 『죽기 전에 꼭 가야 할 세계휴양지 1001』, 마로니에북스, 2011

3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5.4.2 국립공원

카렐리야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숲으로, 약 26%는 강과 호수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유럽에서 가장 큰 호수인 오네가호와 라도가호가 대표적이며, 228km의 백해-발틱해 해협은 발틱해와 백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수도인 페트로자보드스크에서 시작되는 수나강의 키바치 폭포는 ‘다이아몬드가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묘사되기도 한다.

100만 헥타르에 달하는 국토 면적의 5% 이상이 공화국 국립공원 및 자연공원으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대표적인 국립공원으로는 파아나야르비, 보드로제르키 등이 있으며, 다른 자연보호구역들도 뛰어난 풍광을 자랑한다.

숲, 호수 및 강들은 자연휴양지로서 사냥, 낚시, 사과리 투어, 레프팅 등의 다양한 레저 활동을 제공하는 명소들이기도 하다.³³⁾



파아나야르비 공원(카렐리야 관광청)



보드로제르스키 공원(카렐리야 관광청)

5.4.3 그림

카렐리야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화가들은 이콘 화가들이다. 이후 카렐리야는 19-20세기부터 쉬쉬킨, 레리흐 등의 화가들이 카렐리야를 배경으로 작품을 만들었다. 카렐리야에서 직업 화가로 두각을 드러낸 이는 카렐리야 인민공화국의 국민화가로 불리던 포포프였으며, 1934년 카렐리야 자치 인민공화국 화가연맹이 조직되어 라우타넨과 같은 화가가 등장하기도 했다.



쉬쉬킨 작, 발람(1860년)

쉬쉬킨의 1891년 작인 ‘북부의 황야’는 고독을 표현한 작품으로, 어둠 속에서도 곳곳하게 서 있는 소나무를 나타낸 그림이다. 달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계곡과 추위로 인해 모든 것이 얼어붙은 풍경을 그리고 있지만 그림 속 나무는 얼음과 눈에 파묻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강인한 생명력을 보이고 있다.

33) <http://www.ticrk.ru/> (검색일: 2017.6.23.)

VI. 주요인물

러시아의 많은 유명 예술가들은 카렐리야를 배경으로 작품을 만들었다. 이는 카렐리야의 수려한 자연 경관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예술가들 중 유명한 이들로는 화가인 이반 쉬쉬킨, 니콜라이 레리흐 등이 있다. 또한 차이코프스키와 러시아 시인인 아푸흐틴도 1866년 발람 수도원을 방문한 바 있고, 카렐리야는 이들의 작품에 영감을 미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단순히 영감을 미친 것에만 그치지 않고, 카렐리야 태생의 예술가들 역시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인 화가로는 보리스 악블라토프, 알렉산드르 하리토노프, 폴케 니에미넨 등이 있고, 작가로는 표도르 트로피모프, 블라지미르 마로조프, 마라트 타라소프, 엘레나 소이니, 유리 린니크 등이 있으며, 건축가로는 에두아르트 안드레예프 등이 있다.

보리스 악블라토프는 카렐리야 지방의 신화인 칼레발라를 바탕으로 한 일러스트들로 유명하며, 알렉산드르 하리토노프는 소비에트 시기의 수채화가로 현재 카렐리야 내 주요 박물관인 카렐리야 예술박물관, 키지 박물관 등에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카렐리야의 수도인 페트로자보드스크에 그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표도르 트로피모프(위키피디아)

표도르 트로피모프는 카렐리야의 인민 작가로, 카렐리야 지방 신문사에서 편집장으로 재직하던 중 독소 전쟁에 참전해 『고향 숲에서 В родных лесах』라는 연작을 발표했다. 카렐리야의 대표적인 언론인이자 문학가로 소련 정부의 훈장을 받은 바 있다.

건축가인 에두아르트 안드레예프는 모스크바 건축대학을 졸업한 뒤, 1960년 인민경제성과박람회(ВДНХ)에서 은메달을 수상했고 이후에는 페트로자보드스크에서 근무했다. 소련 건축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VII. 대한관계

카렐리야 공화국의 곰 숭배 사상은 한국의 과거 곰 토템사상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카렐리야 공화국과 한국의 교류는 미미한 편이나 다음과 같이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먼저, 2004년 10월에 카렐리야 공화국의 저명한 학자 알트슐레르는 한국 삼성 전자의 초청으로 한국에 가서 공장 견학 및 기술발전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상호 연구간 협력의 기초를 다졌다. 2005년 5월 24일에는 ‘사할린-1 프로젝트’ 추진의 일환으로 카렐리야 공화국에서 생산한 대형 연료저장탱크를 공화국 수송선에 적재하여 한국으로 운송하였으며, 차후 중장비 및 관련 제품들을 지속 생산기로 협약하였다. 2007년 11월에는 페트로자보드스크에서 열린 제4회 국제 임업 경연대회에서 한국 참가자인 장고운이 ‘한국의 산림 개선에 관한 연구’로 3위에 입상하였으며, 12월에는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한-러 상호 이해 및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 북서지역 지방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거점도시 기반구축행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 때 카렐리야 공화국의 대표로 경제발전부 관료인 이고르 오레신이 참석한 바 있다.³⁴⁾ 또한 공화국 출신 스페틀라나는 한국기원에서 바둑을 배워 러시아 및 카렐리야 공화국에 전파하였으며, 2006년 9월 1일부터 3일까지 카렐리야컵 바둑대회를 개최한 바도 있다.



2006년 12월에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최재근 총영사가 카렐리야를 방문했다. 최재근 총영사는 카렐리야의 파벨 체르노프 총리와 면담을 가졌다. 본 면담에서 최재근 총영사는 한국 기업가들을 위해 카렐리야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자리에서 최재근 총영사는 카렐리야-핀란드 기업 간의 협력에 관해 깊은 관심을 드러냈고, 양자 사이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카렐리야 기업 간의 협력도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2006년 최재근 총영사의 방카렐리야(카렐리야 정부) 공화국의 수도 페트로자보드스크에서 카렐리야 경제개발부와 한러 문화 위원회 간 상호이해 각서가 체결되었다. 동 각서에서는 특히 양자 간 투자 및 무역 발전을 위한 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카렐리야와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한국의 태권도 사범을 카렐리야로 파견하기로 했다.

2014년 10월에는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주 상트 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주최로 개최된 바둑 대회에 페트로자보드스크 대학교 동아리 소속 대학생 6명이 참가했다. 이 중 동아리 회장이 전체 참가자 중 7위를 차지했다.

2015년 8월에는 카렐리야 문화부의 초청으로 인천시 대표단이 카렐리야를 방문하여 관광

34) 주러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검색일: 2008.6.4)

사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카렐리야와 인천 양측의 대표단은 각자 자신의 지역과 관련된 관광산업 잠재력을 설명하고 문화 및 교육 행사 등에 있어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도모할 것을 약속하였다.³⁵⁾

2017년 10월에는 이진현 총영사사 카렐리야에 방문해서 파르펜치코프 공화국 수반 권한 대행 면담 및 한국 문화 행사를 가졌다.³⁶⁾

2020년 8월에는 카렐리야 공화국 100주년과 제41회 바둑 세계선수권 대회를 기념해, 페트로자보츠크에서 국제 대학생 바둑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이는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된 행사로, 러시아 체육부와 카렐리야 공화국 체육부의 공식 일정에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둑학과가 개설된 명지대학교에서 대학생 대표팀을 파견하여 2019년 참가한 바 있다.³⁷⁾

2020년 11월에는 페트로자보츠크 국립대학교에서 기능성 나노소재 분야의 물리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이 교육 과정은 페트로자보츠크 국립대학교와 대한민국의 충북대학교가 공동 수행한 국제 연구 프로젝트의 성과가 반영된 결과였다.



2021년 권동석 총영사의 방카렐리야(카렐리야 정부)³⁸⁾

2021년 4월 26일에는 카렐리야 공화국 수장 파르펜치코프와 주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 권동석 총영사가 만나 관광 교류 확대 및 경제·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한국 측의 제안으로 성사되었는데, 양측은 특히 백해를 통한 물류 연결 가능성에 주목했다.

35) drk.ru/russia-korea/news/2015 (검색일: 2017.5.3.)

36) overseas.mofa.go.kr/ru-stpetersburg-ko/brd/m_7862/view.do?seq=114866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검색일: 2019.5.3.)

37) <https://gov.karelia.ru/search/?q=%D0%9A%D0%BE%D1%80%D0%B5%D1%8F&where=&how=d>

38) https://vk.com/wall-134397408_131456 (검색일: 2025.6.28.)

VIII. 참고문헌

헬렌 아놀드, 박누리 옮김. 『죽기전에 꼭 가야 할 세계휴양지 1001』 마로니에북스, 2011
Yuri Saveliev, Nikolay Kolesnikov, Egor Mikhel, 'Prospects for cross-border cooperation in the Republic of Karelia: From borders to shared space – BOSS Report,' 2013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ОСНОВН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24, 2024

росстат, Валовой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одукт по субъекта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6–2023 гг., 2024

росстат, Валовой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одукт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по субъекта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6–2023 гг., 2024

* 인터넷 자료

가디언 <http://www.theguardian.com/>

러시아 통계청 www.gks.ru

리아 노보스티 www.ria.ru

스푸트니크뉴스 <http://sputniknews.com/>

유네스코한국위원회 www.unesco.or.kr

카렐리야 공화국 정부 홈페이지 <http://gov.karelia.ru/>

카렐리야 관광청 <http://www.ticrk.ru/>

카렐리야 투자청 <http://www.kareliainvest.ru>

Karelinform <http://karelinform.ru/>

mariuveren.wordpress.com

ГТРК Карелия <http://petrozavodsk.rfn.ru/>